

2012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연수 목적

전통 문화유적 등 보존·관리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함

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9. 3.(월) ~ 9. 12.(수)/ 9박10일(국내일정포함)
- 대상지역 : 북유럽(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연수인원 : 4명(의원 3, 수행공무원 1)
 - 의원(3명) : 이재영, 임용수, 이화동
 - 직원(1명) : 이환행
- 중점 연수내용(방향)
 - 문화유적 등 보존·관리실태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 관광상품 개발·운영 실태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II. 연수 일정

- 연수대상 기관 및 시설, 문화유적

구분	기관·시설·문화유적지	기타
덴마크	· 코펜하겐시청 · 프레드릭스보그성	※기관방문이 없거나 토·일(공휴일) : 문화유적지 및 시가지 등 관광
노르웨이	· 마이킹박물관, 국립미술관 · 비겔란조각공원	
스웨덴	· 스톡홀름시청, 국회의사당 · 바사박물관	
핀란드	· 원로원광장 및 대성당 · 템펠리아우키온교회(암석교회)	

● 연수세부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활 동 계 획	식사
제1일 9. 3. (월)	함평 평주천 인천 코펜하겐	버스 항공기	05:00 06:00 12:40 19:15 20:45	함평군청 출발 광주시외버스터미널 도착 광주에서 공항리무진으로 인천공항으로 이동 중국수속 및 인천공항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경유 [덴마크] 코펜하겐 도착 후 호텔 투숙	휴게식 기내식 기내식
제2일 9. 4. (화)	코펜하겐	전용버스 선박	09:00 17:00	코펜하겐시청 방문 문화유적지 및 시가지 등 관광 코펜하겐에서 오슬로까지 선박이동 (약 14시간 30분 소요)	호텔식 현지식 선내식
제3일 9. 5. (수)	오슬로 릴레함메르 돌비스	전용버스	09:30 16:00 19:00	[노르웨이]바이킹박물관, 비겔란 조각공원 관람 오슬로 및 릴레함메르 시가지 등 관광	선내식 현지식 호텔식
제4일 9. 6. (목)	돌비스 올레순노 게이랑에르 스트린	전용버스 선박	09:00 ~	올레순노 구시가지 및 게이랑에르 피요르드 등 관광	호텔식 현지식 호텔식
제5일 9. 7. (금)	스트린 브릭스달 플롬 게일로	전용버스 전동차 열차	09:00 ~	브릭스달 푸른빙하, 플롬라인 산악철도 체험	호텔식 현지식 호텔식
제6일 9. 8. (토)	게일로 오슬로 칼스타드	전용버스	09:00 ~	오슬로 아케르브뤼게 체험 국립미술관 관람	호텔식 현지식 중국식
제7일 9. 9. (일)	칼스타드 스톡홀름	전용버스 선박	09:00 17:00	[스웨덴] 스톡홀름시청 및 국회의사당, 바사박물관 관람 스톡홀름에서 헬싱키까지 선박이동 (약 14시간 소요)	호텔식 현지식 선내식
제8일 9.10. (월)	헬싱키	전용버스	09:00 ~	[핀란드] 원로원광장 및 대성당, 시벨리우스공원, 암석교회(렘벨리 아우키온 교회), 우스펜스키사원 및 마켓광장, 수오멘리나섬(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관광	선내식 현지식 중국식
제9일 9.11. (화)	헬싱키 윈현	항공기	06:35 08:05 11:55	헬싱키 반다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 공항 경유 (연결편으로) 인천으로 출발	도시락 기내식 기내식
제10일 9.12. (수)	인천 광주 함평	항공기 버스	05:30 07:00 12:00	인천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리무진으로 이동 광주출발 함평도착	휴게식 휴게식

III. 연수결과

《북유럽 견문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북유럽을 9.3-9.12 까지 10일간 군의원 3명과 의사과장이 다녀왔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독일 뮌헨을 경유하여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13시간동안 고도 36000피트에서 비행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다.

9월 4일

첫째 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이국적인 건축양식에 감탄하고 고풍스러운 코펜하겐 거리를 걷는 것으로 유럽 견학이 시작되었다.

중년 여성인 가이드는 자기소개와 아울러 이 곳은 해양성 기후로 최고기온이 20도로 가을 날씨이며 교민은 280명이 거주하나 우리나라 입양아 8천명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놀라운 표정이었다.

인구는 540만 명인데 자전거는 인구의 2배정도 소유하고 있는 나라로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는 소개다.

자전거길이 잘 다듬어져 있는데 자전거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보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에 따라 자전거길에서의 조심성은 대단했다.

국민소득 59000달러로 평야지 나라 최고 높은 산이 172미터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로서 행복한 나라지만 가이드는 소매치기에 조심할 것을 강조했다.

EU연합으로 통합이후 동유럽 가난한 국민들이 원정하여 소매치기를 하는 등 빈부격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18세가 되면 법적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고 성교육이 철저하지만 이혼율은 60% 정도이며 미혼모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원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 넓은 평야의 농사도 자격증 소지자만이 경작이 가능한데 고졸은 황색 자격증 왕립농업대 졸업자는 녹색증명을 발부하여 그 수준에 맞게 경작하는데 농업은 전체인구의 4%정도이나 수출품의 20%를 농산물이 차지할 정도로 고급화 되어 있다고 했다.

농특산물로는 감자로 만든 술과 돼지고기가 유명한데 돼지는 양질의 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시킨다고 했다.

덴마크는 낙농업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조선소, 컨테이너, 요트, 디젤BMW 부품공장 등으로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바로크 정원은 왕궁 정원으로 덴마크가 자랑하는 푸른 다이아몬드처럼 다듬어진 정원이었다.

왕궁과 호수가 있는 곳을 활용하여 상단을 정정한 고목을 즐비하게 조성하였고 회양목과 비자나무를 우리나라 군대 의식하듯 직각으로 또는 반듯반듯하게 전정하여 조각한 것처럼 디자인하여 조성했는데 감탄사와 상쾌함은 나를 벅차게 했다. 많은 예산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정원 조성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나도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났다.



시청 청사는 고궁인지 사무실인지 모를 정도로 웅장하고 고풍스러웠다.

벽면에는 왕에 대한 존경심으로 대형 초상화를 즐비하게 걸었고 나머지 여백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덴마크하면 떠오르는 것이 안데르센 동화다.

시청 옆에 세워진 동상 앞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사진 찍느라 즐비했고

해변에 세워져 있는 인어공주상 앞에도 여전히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었다.

인어공주상은 북경 엑스포장에 나라를 대표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는 가이드의 입술에서 대단한 상품임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상상력으로 전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 들어 후손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인어공주를 뒤로 하고 해질 무렵 노르웨이로 이동하는데 DFDS유람선은 1500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망망대해를 14시간 항해하여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시간에 도착했다.

늘 잔잔한 바다라 자랑하였지만 그 날은 약간의 파도가 있어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이야기했다.

9월 5일

둘째 날,

노르웨이 오늘날은 북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로써 인구 6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민소득은 89000달러로 지하자원이 많고 소득도 높기 때문에 EU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붕 경사가 가파르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지붕의 형태를 보니 오랜 세월 환경에서 얻어낸 지혜의 상품임을 알 수 있었다.

바이킹 나라, 우리는 바이킹하면 해적을 연상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변의 사람들이라 하고 있다.

화강암 바위산으로 구성된 척박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눈이 많이 내려 생활하기 어려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로 항해하며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오늘날의 선진국을 일구어 내다보니 해적이란 말을 들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바이킹 박물관은 바이킹족들의 발자취와 유물 등을 전시하여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조상과 역사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 했다.

비젤란 조각공원은 오솔로 시와 조각하는 예술가와 합작으로 남긴 이 지구상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란 생각이 든다.

시에서는 10여만 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대여하였고 비젤란 조각가는 36년간 자신의 예술을 그대로 헌납한다는 조건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이 공원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입장료가 없으며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00여년이 흘렀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신뢰성에 놀랐고, 당시에 예술가의 요구 조건을 무한정으로 들어 준 시의 책임자에게도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우리 군정에서는 어떠한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해 본다.

9월 6일

셋째 날,

노르웨이하면 유명한 피요르드 해안을 찾았다.

피요르드는 빙하기 시대에 얼음의 하중으로 들어 야닌 흙과 함께 쓸려 내려가 바닷물이 잠겨진 강 같은 호수다.

폭은 6-700미터이나 깊이는 산의 높이 만큼이기 때문인지 다리를 세울 생각은 없고 배로 모든 사람들을 운송하고 있었다.

가이드는 다리를 건설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용창출 차원에서 배를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다.

노르웨이는 진 해안이 피요르드 해안으로 물이 풍부하고 깨끗했다.

앞으로 21세기 후반에는 진 세계가 물이 부족하고 오염된다고 하지만 이 곳 북유럽은 그때 더 가치를 인정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은 거의 대부분이 화강암 바위산이었고 가옥들이 산 중턱에도 예쁘게 지어져 있었다.

바위가 단단하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없어 산 중턱에도 허가를 해 주는 지역이었다.

9월 7일

넷째 날,

버스를 타고 한 참 달리니 브리스달 푸른 빙하는 요소요소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얼음이 녹아내리는 폭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 빙하가 10년 전보다 눈으로 느낄 정도로 많이 녹아 없어져서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 현장에서 이화동의원은 흘린 듯이 달리가 빙하 덩어리를 채취하여 왔다.

관광자원 하나 없는 우리 고장에 이런 폭포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들이 많았다.

내가 북 유럽을 관광하고 싶었던 것은 플름라인 산악 철도가 통과하는 아슬아슬한 계곡과 오염되지 않은 천연 폭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대하는 만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시간이었다.



북유럽은 날씨 때문인지 소나무 전나무 자작나무들이 일직선으로 자라는 것이 특색이었는데 전봇대를 모두가 나무로 세워져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이유로 콘크리트 전봇대로 교체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친환경을 이유로 나무 전봇대를 고집하고 있었다.

9월 8일

다섯째 날,

방문한 국립 미술관 입구는 고풍스러우나 허술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부에는 많은 사람과 웅장함 세계적인 고대 미술작품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다.

외부 처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었다.

그 중에서 뭉크의 절규는 1361억원에 경매되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몽크 절규의 가치를 생각하며 석양노을이 있는 부두에서 2500여명이 승선한 배를 타고 핀란드로 향했는데 물건을 구매하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손바닥에 지폐를 얹어 놓으면 알아서 가져가고 잔돈을 내 주는 대로 받아와야 하는 답답함을 느끼며 선상에서 커피를 마셨다.

9월 9일

여섯째 날,

방문한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은 웅장하고 단아하며 고풍스러웠는데 매년 12월 10일 노벨상을 수여하는 장소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노르웨이 오슬러에서 2000년 동월 동일 수상하였지만 노벨상 수상장소이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시청사를 견학하고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는데 저 탄소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국회의장과 의원 거의 모두가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했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 나라에서는 120년 된 국회의사당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내부를 바꾸자고 건의했다가 의원이 혼 줄이 났다는 설명이다.

전통과 예술, 환경은 서구 시민들의 생명이고 자산이었다.

핀란드는 숲의 나라,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산악지역이지만 핀란드는 가도 가도 숲과 평야지다.

스웨덴은 상단을 전정하여 가로수 숲으로 관리하는 한편 핀란드는 같은 나무지만 나무를 있는 그대로 가로수로 사용하는 간섭하지 않는 나라였다.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다하여 운동경기를 하면 꼭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되어 있어 숙명적인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는 나라들이었다.

9월 10일

일곱째 날,

수오멘린나섬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라 하여 자랑스럽게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요새지다.

폭탄이 떨어져도 피해가 없을 요새지로 만들었는데 역사적인 지역으로 관광 상품화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피해예상 지역인 우리나라 백령도에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템펠리 아우키온 교회는 암반을 발파하여 건축하였으나 암반을 있는 그대로 벽으로 사용하여 자연을 예술적으로 설계하여 지붕을 울리 교회로 사용하는 신비스러운 교회였다.

저장을 좋아하는 우리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유럽 견학 일정에서 마지막으로 간곳이 스미크식 사우나인데 건식 사우나로 입장하자 제 냄새가 나는 불쾌감 속에서 땀을 내야했고 땀을 식히기 위해 옆에 있는 호수가 있었는데 이런 곳까지 왜 우리를 안내했을까 생각하며 땀이 흘러 내리기를 기다렸다.

이런 사우나를 이억만리 떠나면 곳에서 온 관광객에게 자신 있게 선보이는 이 나라가 부러웠다.

우리 해수점은 민방요법으로 산후통에 효과가 있으며 개운함이 있어 자랑할 만한 상품인데 우리는 지금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을 최대한 포장하여 활용하면서 자랑스럽게 홍보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선진국 북유럽의 건학은 문화와 전통과 환경을 직접 체험하면서 보고 듣고 오감으로 느껴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만한 지역이었다고 생각해 본다.

함평군의회

이재영 의원

"

임용수 의원

"

이화동 의원

의회사무과

이환행 과장

2012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 ◆ 일 시 : 2012. 10. 9.(화) 10:30 ~
- ◆ 장 소 : 의장실
- ◆ 보 고 자 :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 ◆ 참 석 자 : 12명 - 의장, 부의장, 공무국외여행자 4(의원 3, 수행공무원 1),
기타 6(의원 2 의회사무과 직원 4)
- ◆ 개최결과 : 보고서를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기로 함
- ◆ 보고회 개최 장면



2012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2012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